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5월 17일 (제104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럼

기도의 힘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게 될 즈음, 나는 우리 7남매를 다 불러 향후 어머니의 장례절차를 의논했었다. 나의 의견은 조문객을 받지 말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조문객을 받는다면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올 것 아니겠는가. 그건 분명 모두에게 민폐라는 생각에서였다. 내 이런 의중을 알고 대개는 따르겠다고 했으나 사업을 하는 형제들이 내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냈다. 자신들의 사회적 입장이 있는데 어머니 장례를 몰래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또 관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옳기에 나는 그 후로 계속 이 일을 두고 기도해왔다.

얼마 전, 어머니가 소천하셨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것이다. 당연히 가까운 목사나 장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기도원에 안장했다. 나와 의견을 달리했던 형제들도 순순히 장례절차에 따랐다. 국가가 비상사국이니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어머니가 가시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생각하니, 새삼 기도의 위력을 실감했다. 내 기도가 상달되어 형제끼리 아무런 마찰을 없이 어머니를 보내드린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렇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향아리가 아구까지 차면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과학이나 의학도 한계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부하건대, 부모님 생전에 효도해라. 돌아가시고 난 뒤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시고 나니 못해드린 것과 잘못된 것만 기억에 남더라.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약 두 달 만에 재개된 현장예배의 감격을 목사님은 “**소중한 추억담**”이란 시(詩)로 그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셨다.

“ 나 그대가 그리워 울부짖었네
울부짖었소
밤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울부짖었네
울부짖었소
그대가 그리워 그대가 그리워
옆에 있을 땐 난~ 몰랐소
그대가 그리도 소중한을...
곁에 있을 땐 난~ 몰랐소
당신이 그리도 소중한을

내 사랑 중요한 자유와 행복을~~ ”

장시(長詩)인지라 그 내용을 요약하면 ‘사랑하는 임이 너무도 그리워 밤새 울부짖는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한을 몰랐는데 떠나보내고 나니 눈물로 사무친다. 밤새 울며 기다리고 기다린다.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랑을, 그 자유와 행복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목사님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의 심정

(戰士)라는 각오로 그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나 하나의 방심과 일탈이 내 가족과 이웃, 사회, 국가를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어떻게 재개된 현장예배인가? 사회의 우려를 딛고 정말 기도로 다시 찾은 예배이다. 목사님의 시가 내뿜고 있는 그 간절함처럼 다시는 놓칠 수도, 빼앗길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온갖 불편도 감수한 채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오는 것 아닌가. 다시는 놓칠 수 없다. 다시는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찾은 예배의 감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리워 밤새 울며 기다렸소
기다렸소
문풍지 소리만 들려도 그대 오시니
문 열고 뛰어나가도 그대는 보이지 않았소
언제나 오시려니 언제나~ 언제나
내 눈두덩은 새까맣게 멎었고
두 줄기 눈물은 시네를 이루네
그대가 오시면 멈추려니 멈추려니
어서~ 돌아오소서 내~ 님이시여
어서~ 돌아오소서 내~ 님이시여
첫 났 우는 소리에 깨닫고
눈물 흘리며 다짐에 다짐만다오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평화 속 중요한 자유를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보내드리지 않으리

으로 기다렸음을 알 수 있었다. 거리두기 입 퇴장, 손 소독과 발열체크, 명단 작성, 그리고 예배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불편조차 개의치 않고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였다.

세계 제일의 성공적 방역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코로나19사태가 최근 재차 확산되는 추세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극히 작은 방심이 부른 결과다. 지금까지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힘을 합해 공을 들여온 일이라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목사님 말씀하시듯, 아무리 공든 탑이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수백 년 기른 나무도 자르는 데는 몇 분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국민 각자가 방역 일선을 책임지는 전사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더욱 기도

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서울에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 중의 특권이기에 때문이다.

힘겹게 되찾은 현장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서울의 예배처소를 위해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자. 이것이 다시는 놓치지 않는 길이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길이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6~8)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좋다

여러분, 공든 탑은 안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정이란 탑은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공들이지 않으면 순간 무너집니다. 목회 36년에 접어들었으니 오죽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 대다수가 가정에 대한 것이고, 그중의 상당수가 부부가 싸워서 상담하러 온 경우였습니다. 저는 부부 일에는 잘 관여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곤 합니다. 특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자고로 방귀가 좃으면 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싸우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분노’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투견처럼 사사건건 화를 냅니다.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남편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자면 정말 힘이 들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고픈 찬양시가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라

‘오 모래여, 오 모래여, 내 사랑 모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파도의 고백이라오/ 당신은 모래, 나는 파도/ 당신은 배요, 나는 노라오/ 우리는 예수가 뱃해주신 영원한 천생연분이라오/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랑뿐이라오/ 지치고 상한 맘 안식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당신만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모래와 파도’라는 제가 작시한 곡인데요. 이 곡을 작시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목회 초기,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마음도 식힐 겸 혼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상념에 잠겨있는데, 거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위에 부딪치니 파도가 자지리지게 소리를 내고 아파하며 물러가고, 받아친 바위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반면에 눈을 돌려 모래사장을 보니 같은 세찬 파도가 물러와도 모래는 그것을 다 안아 잠재우고 물방울을 만들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노를 되받아치지 않는 지혜, 그걸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한쪽이 화가 나결랑 잠시 피하든지, 그냥 그때는 조용히 보듬어야 큰 싸움이 안 납니다. 예서가 장자권을 빼앗겨 노가 가득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켰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15:1)고 말씀하심으로 거센 파도에는 모래 같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럼요, 한쪽이 화가 나면 다른 쪽은 참아야 합니다. 되받아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 손이 피해보세요. 절대 소리가 나지 않



총회장 이초석 목사

습니다. 그렇다 면 매일 한 쪽이 참고만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분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면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집에 불을 지르지 않나, 가족을 살해하지 않나, 무고한 자를 표적 삼아 해코지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화 잘 내는 사람과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겠으며, 누가 그의 그늘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을 볼까요? 왜 가인이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습니까? 노를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창4:5~8). 그의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간신히 생명표를 얻어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되는 꼴이 없이 유리방황하

는 신세가 되었습니다(창4:11~12). 가인처럼 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겔21:4~5). 혈기 있는 자를 칼로 치고, 그 칼이 다시 꽃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혈기를 내는 자는 다 죽인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

라”(잠25:28)고도 하셨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 도적이 날뛰고 외적이 침입할 것 아닙니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창수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잠27:4). 홍수가 나면 그간 애써 가꿔놓은 집이고, 가족이고, 사람까지 다 쓸어가듯, 분노로 인해 순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을 내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잠22:24~25)고 하셨을까요? 성격이 꼴라 같은 분들, 그 성격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생수와 같아집니다. 제가 그 샘플입니다. 저도 총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격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온유해졌습니다. 살인자 모세가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었듯이, 혈기 왕성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기타 줄처럼 파르르했던 베드로가 온유한 자가 되었

듯이 말입니다. 성령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갈5:22~23).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 신성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하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다고도 하셨습니다(마5:5), 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쉬이 분을 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온유’란 파스할 온(溫), 부드러운 유(柔)입니다. 양지에 꽃이 먼저 피고, 파스한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고, 권면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딤후2:24~25). 또한 아내들도 그 행위를 보고 안 믿는 남편이 ‘나도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할 수 있게끔 온유함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벧전3:1~4). 그리고 혹시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엡4:26~27).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자서전입니다. 분노로 인해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을 창수로 싹 쓸어버리느냐, 아니면 온유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그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창4:23). 괜히 화내서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느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참고로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좋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숙성된 인격,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0~2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용달샘 ::

시장을 이기는 투자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비싼 수험료를 내고 이제야 투자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 전철일랑 밟지 마세요. 젊은 세대는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시간이 돈을 벌여준다(Time makes money)’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돈은 투자 성공을 위한 조합이지요. ‘여러분은 뒤로 물러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과 돈이 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주식가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손실이 날 때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신의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내는 우량 회사의 주식을 사서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팔지 말고 보유하라.” 주가 하락은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락장세가 시작되면 10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을 주가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남

은 돈이나마 건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치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죠.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사람들은 또 폭락이나 조정을 받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기에 주식을 파는 것은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윌돈을 따로 떼어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직 젊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가가 하락하면 마음이 아플 것이나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는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승세에 편승해 이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매사 서두르지 말고 덤비지 말고 다섯 번 생각할 것을 열 번 생각하면서 투자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성경에세이 ::

잘 내려와야지!

여보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등정에 성공한 걸까? 아니지, 하산까지 해야 등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하산하지 못하면 실종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나라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옥에 들어가고, 한 분야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제대로 하산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씁쓸해서 하는 말이네.

여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네.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지.

다윗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네.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 자신을 추스려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지. 그는 죽기까지 부와 존귀함을 얻은 아름다운 자라네(대상29:28).

인생이 실수 없이 갈 수는 없겠지.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면 죄가 되기에 어서 돌이켜 반듯한 길로 가야 한다네. 그래야 진정한 성공된 삶이 되는 거지.

또 하나, 인생에는 반드시 하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네.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원하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네. 돈 많던 부자보다 헌데나 훔던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삶이라는 거지. 물론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네.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도 꽂고 하산까지 아름다운 사람이면 금상첨화 아니겠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네.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살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레스트에 오르게 하시고, 하산까지 철저하게 도우실 걸세.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세!

朋友

십일조를 못하는 이유

할아버지 손을 잡은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슈퍼마켓에 왔다. 아이는 익숙한 듯 과자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더니 과자 두 봉지를 손에 들고 할아버지에게 왔다. 할아버지가 계산을 끝내고는 과자 봉지를 뜯어 아이의 손에 들려준다. 아이가 한참 과자를 먹는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 하며 입을 벌린다. 그러자 아이가 “싫어.” 하며 행여 과자를 뺏길까 가슴에 꼭 안는다. 할아버지는 그것마저도 귀여운 듯이 웃으며 “할아버지 하나 주면 나 중에 더 많이 사줄 건데.” 해도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것이 십일조를 못하는 이유다. 누가 사줬는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에게 과자 하나를 못 주는 아이와 같은 자가 십일조를 못하는 거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자기 것인 줄 안다. 그러니 아까울 수밖에.

할아버지가 과자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손

녀 것을 달라고 할까. 하나님이 사람 때 묻은 돈이 필요하실까. 다만 애정 테스트를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할아버지 말대로 하나 드리면 과자를 통째로 또 사주신다. 하나님도 십일조를 하면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고 하셨다.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전4:7). 십일조는 내 것 열 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 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도 갈등되는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3:8). 예수중심편집실



:: 삶이 있는 이야기 ::

리셋(Reset)

우리는 모두 ‘코로나 사태’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다. 견잡을 수 없이 포악하게 퍼져나가는 바이러스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듯 승승장구하던 인간들의 능력은 초라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억눌렀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모든 일상을 접고 기약 없는 격리상태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향하는 선박을 탔을 때 큰 풍랑을 만난 일이 있다. 선원들은 배의 짐과 장비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고, 소망을 잃은 채 두려움에 떨었다.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확신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실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행27:25).

바울의 일대기 속의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거친 풍랑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를 닮아있다.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이나 장비 등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투하(Jettison)’라고 한다. 우리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풍랑 앞에서 삶 속의 많

은 것들을 투하했다. 두렵기도 했고, 실제로 감수해야만 하는 손실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고 몸을 숙여 견디고 있다.

풍랑은 점차 잦아들고 있다. 이제 다시 배를 띄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배에는 무엇부터 실을 것인가. 그 중심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점검해가며 채워 넣자.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리셋(Reset)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닥쳐도 그것만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인생의 비상상황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언제든 될 중요한 것은 내던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이 중심에 불잡을 것은 오직 부활과 영원한 삶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풍랑 속에서도 생동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자. 분명한 목적을 가진 배는 거친 흔들림도 견디어낼 것이다. 이호은 사모

이김을 선택하자!

우리는 누구나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그 폭풍을 지나가는 모습만은 제각각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 역경일 진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 화만 내다 지나가고, 누구는 겨우겨우 버티고, 누구는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앞으로 나가니 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불췌 찾아온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다양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를 대하는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확진자들과 국가에 끊임없이 분노만 쏟아내는 사람, 빨리 이 시국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 이 와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가정, 사업터를 위해 방법을 찾아내며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두 달 동안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할 때 온라인으

로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공과책을 제작해 보내주시거나 동영상 설교를 만들어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직접 관리해줄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상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각자의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돌아보지 못했던 연약한 지체들과 연락하며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기뻐 삼아 가족들과 대화를 늘리고 온전히 가족예배를 드리는 모습, 개인 기도시간을 늘리며 그 어떤 교회보다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는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

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 역시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절망시키기 위함이지 아니요, 오직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배울 것을 배우게, 찾을 것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법임을 믿습니다.

불평하거나 겨우 버티는 삶보다 이왕이면, 되레 이겨내는 삶을 선택해봄은 어떨까요? 세상과 똑같이 비난하고 화내기보다, 아무렇지 않게 방법을 찾아내며 넉넉히 이기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본을 보이며,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은 어떨까요?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김을 선택하고 결심한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잠24:10).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Good News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모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와 의사가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먼저 등단한 천문학자가 자신이 개발한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자랑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옷

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의사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체를 해부하고 수술을 했지만 그 영혼은 살 속에도, 뼈 속에도, 핏 속에도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을 향해 질문을 하라고 하자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연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천문학자에게 “박사님, 망원경으로는 바람도 볼 수가 있나요?” 당황한 박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 할머니의 질문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영생에 이르는 길 ::

환난 날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자세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합니다. 이 전염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두 달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난 날이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합니다. 당시는 이라크 파병 모집 지원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단 위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지도자가 되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언젠가 지도자가 된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고 이라크 파병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멋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갔던 영국의 해리왕자

가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결심을 어머니께서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인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병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조건이었고, 저 스스로는 장차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이야깃거리라는 점에서 논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절대 반대하시던 어머니는 목사님께 상담해보자고 하였고, 목사님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월남전에도 가셨고 애국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목사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27:12)며 환난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차출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환난을 자처하

여 가는 건 부모님의 걱정과 눈물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낙비는 잠시 처마 밑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비 오는데 나갈 필요 없습니다. ‘비웃을 입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웃을 입어도 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지혜롭게 국가의 방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다시 성전 문이 열렸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날도 올 것입니다.

김대화

전쟁 속에서 찾은 희망!

18세에 독일군에 징집되어 갔던 ‘아디(Adolf)’가 전쟁에서 돌아온 1919년, 아버지의 신발공장은 어렵고, 어머니의 세탁소는 경제 불황으로 문을 닫게 된다. 아디는 오래토록 품었던 꿈인 ‘혁신적인 운동화를 만들자’라는 희망을 가지고, 문 닫은 세탁소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며 동네 사람들의 신발을 수리하면서 전쟁 폐기물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육군 헬멧과 파우치에서 가죽을, 낙하산에서 실크를, 군복, 포대 자루, 자동차 타이어 등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은다. 그리하여 아디가 만든 신발은 지역 스포츠클럽에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주문을 받게 된다. 이에 아디는 다른 종류의 스포츠화를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소가족으로 운동화를 만들고 신발 밀창에 못을 박아 운동장 트랙에서 이용하기 쉬운 최초의 런닝화를 만들게 된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웃기게 생겼다’,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비판했는데, 아디는 이에 신경 쓰지 않고 1925년 스파이크를 박은 런닝화 특허를 내고, 1928년 암스테르담 하계올림픽에서 독일 육상선수인 리나 라드케에게 신겨 세계신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미국 육상선수 제시 오웬스가 아디의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4개나 따면서 전 세계에 아디의 운동화를 알리게 된다. 아디는 1949년 ‘아디(애칭)+다스(성: Dassler)’를 설립하고, ‘농구화’, ‘축구화’, ‘축구공’까지 만들면서 1970년 FIFA 공인구로 채택되어 ‘아디다스’는 나이키와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다.

아디는 전쟁이라는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운동화’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어내었다.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 지금, 아디처럼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이들을 본받아 위기를 점프하여 더 큰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